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전북교육청, ‘정책을 부탁해’ 공모·도내 중·고생 대상... 21일~8월 1일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생정책 제안인 ‘정책을 부탁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방향이나 학교생활에 필요로 하는 의견을 제시·공유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전북 교육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정책 제안 참가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생으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모전 게시판(<http://news.jbe.go.kr>) 또는 2021 정책을 부탁해 배너 클릭 후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제안 내용은 ▲모든 학교에 공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 ▲특창적이고 새로운 정책 사항이면 된다.

도교육청은 제출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0명 이내의 학생을 선발·시상한다.

특히 우수 정책을 제안한 학생을 대상으로 차담회를 열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무부서 검토·협의를 거쳐 실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제안 접수 종료 후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5명을 선발, 당첨된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간식을 지급하는 ‘친구들이, 간식 먹자’ 행사도 운영한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면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1대1 학습 ▲준비물 대여소 운영 ▲청소년 청원 홈페이지 ▲학교 독서실을 만들어주세요 ▲전북학생 소식 발간 ▲달맞이교육정책 ▲전북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 밴드 활성화 ▲행동으로 배우는 환경교육 ▲야



학교 너무 용돈기립장 쓸 수 있어 ▲계단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설치 등 10건을 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정 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예비·초기 창업자 크라우드펀딩 진행

전북대, 아이템 검증 교육·선정평가 통해 5개 기업 제작 등 지원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단장 조광수)이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이템 시장성 검증 기회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템 검증이나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및 초기 창업자 11팀을 선발, 지난 15일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어 선정 평가를 통해 로즈파니(대표 김려원)와 마켓케어(대표 마희진), 수우수(대표 윤동혁), 악토버(대표 이현주), 그리고 예비창업자 이민지 대표 등 5개 팀을 선발했다.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이 운영하는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도모하고, 전략 설계,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사업단은 이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에 선정된 5개 팀에게 제품 소개를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과 올해 12월까지 펀딩 오픈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광수 단장은 “전북지역 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가 창업의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시장 조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군산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단장,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영철)은 지난 18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2021년 군산 강소특구 기술사업화연구회(TBM)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술사업화연구회(TBM)는 SW융합 부품 분야, 친환경소재 분야, 전기차 구동부품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특화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육성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과의 매칭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기업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기술사업화연구회에는 관내 기업지원기관 및 사업화전문기관과



강소특구 특화 분야 약 50여 명의 기업 관계자, 기술 실무자 등이 참석했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Tech-up Track-1, Track-2) 및 컨설팅 지원사

업(Value-up), 기술개발 지원사업(Jump-up), 기술이전사업화(R&BD) 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내용이 소개되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교대, JNU마음 프렌즈 '도래상담' 멘토링 교육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최근 3회에 걸쳐 JNU 마음 프렌즈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인 '도래상담' 프로그램 멘토링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교육대학교는 코로나19 감염질환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생활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이 늘어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왔다.

JNU 마음 프렌즈 멘토링은 멘티들과 비슷한 연령, 유사한 생활 경험, 가치관 등을 가진 도래(멘토)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도래(멘티)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의 상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고,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사전에 파악가능하게 되며,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타 프로그램 개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총 3회 12시간에 걸쳐 교사교육센터 3층 상담교육실에서 진행, 친한 친구되기, '도래상담 기법 익히기', '시제를 통한 활용능력키우기'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주교대는 멘토-멘티 모집을 통해 14명의 재학생을 선정, 7월 30일까지 멘토-멘티를 추가 모집해 8월 중 멘토멘티를 최종 매칭할 예정이다.

김우영 총장은 “대인관계, 이성관계, 생활관리, 성격,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생활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멘티 스스로가 훌륭한 상담자로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학 창의캠프로 생각하는 힘 키운다”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서... 초등 108명·중등 108명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1 전북 수학 창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7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초등학생(5~6학년) 108명, 중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창의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번 수학 창의캠프를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수학적 사실

을 추측하고 분석하는 힘을 길러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캠프에는 학교당 6명 이내로 참여한다. 특히 밀집·접촉도 완화를 위해 오전 54명, 오후 54명이 참여하도록 분산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문제적 학생활동, 수리탐색대, 수학올림픽 등 3개 분야로 전복초등/중등수학교사연구회 교사들이 자체 개발한 것이다.

1모둠은 3인으로 구성되며, 문제적

학생활동과 수학올림픽은 6개의 모듈이 동시에 참여하고 수리탐색대는 2모둠씩 3개 코너에 참여해 집중력을 기르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고 배려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학습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외국인 유학생 위한 ‘잡 페어’ 개최

전북대, 21~22일 개최... 기업설명회·상담·컨설팅 등 제공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전북대학교가 잡 페어(JOB FAIR)를 마련했다.

오는 21일과 22일 양일 간 이 대학진수당 바오로홀과 스터디룸 등에서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행사에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지역 내 기업 등이 참여해 기업 설명회와 기업 상담 및 컨설팅이 진행된다. 또 사후 관리로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입사지원서, 면접교육 등도 이뤄진다.

전북대 대학원에는 현재 54개국에서 719명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잡 페어에는 국내 12개 기업이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취업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고학력 외국인 채용을 원하는 기업 간의 구직 및 채용의 가교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잡 페어에 참여자는 전북대 홈페이지(<https://www.jnu.ac.kr>)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BK21 대학원혁신사업 홈페이지(<https://bkgraduate.jnu.ac.kr>)에서 사전 접수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